사계절 푸르른 양잔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최경주 시즌 첫 '톱5' 예감

셸휴스턴오픈 3R
9언더파…공동 5위
선두 애플비와 5타차

'탱크'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올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톱10' 진입을 눈앞에 뒀다.

올 시즌 8개 대회에서 한번도 10위 안에 들지 못했던 최경주는 23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 험블 레드스톤골프장 토너먼트코스(파72·7천457야드)에서 열린 셸휴스턴오픈 3라운드에서 버디는 6개를 쏟아내고 보기는 1개에 그치며 5언더파 67타를 쳤다.

이로써 중간합계 9언더파 207타를 스코어카드에 적어낸 최경주는 트레버 이멜만(남아공)과 함께 공동 5위에 올라 올해 최고의 성적을 바라보게 됐다.

개막전 우승자 스튜어트 애플비(호주)는 14언더파 202타로 3라운드에서도 선두 자리를 지키며 우승을 예감했다.

최경주는 비거리 300야드가 넘는 드라이버샷으로 페어웨이 적중률 79%를 기록했고 1.8개가 넘었던 그린 적중시 퍼트수도 1.7개로 줄이며 안정된 플레이를 펼쳤다.

전반에만 버디 4개로 4타를 줄인 최경주는 후반 11번홀(파4) 버디를 잡은 뒤 14번홀(파3)에서 보기를 범했지만 다음 홀(파5)에서 버디로 만회하며 큰 실수 없이 사흘째 경기를 마쳤다.

이날 5타를 줄인 마티아스 그론베리(스웨덴.12언더파 204타)는 선두 이멜만에 2타차 2위로 따라 붙었고 밥 에스테스, 제리 스미스(이상 미국)가 10언더파 206타, 공동 3위로 뒤를 이었다. '2인자' 비제이 싱(피지)은 3타를 잃어 1언더파 215타로 공동 15위에서 공동 51로 밀리며 우승권에서 완전히 멀어졌다.

▶최경주가 23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열린 PGA투어 셸휴스턴오픈 3라운드 9번홀 티샷을 한 후 볼을 바라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LPGA 첫 정상 보인다"

임성아가 23일 조지아주에서 열린 미 LPGA투어 내추럴채러티챔피언십 3라운드 1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임성아, 선두 1타차 추격
내추럴채러티챔피언십 3R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년차 임성아(22·농협한삼인)가 '골프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과 우승을 다투게 됐다.

임성아는 23일 미국 조지아주 스톡브릿지 이글스랜딩골프장(파72·6천394야드)에서 열린 플로리다스 내추럴채러티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4언더파 68타를 쳐 선두 자리를 소렌스탐에게 내줬다.

소렌스탐은 보기는 1개에 그치고 버디 9개를 잡아내 중간합계 17언더파 199타로 임성아를 1타차로 추월했다.

임성아가 24일 최종 라운드에서 같은 조에 편성된 '역전불허' 소렌스탐을 제치고 LPGA 투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8언더파를 치며 단독 선두에 올랐던 임성아는 2번홀에서 4번홀까지 연속 3개의 버디를 낚아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이후 12번홀까지 파행진을 계속하다 13번홀(파5) 버디 1개를 추가한 것이 아쉬웠다.

임성아가 소렌스탐과 1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 장정(26·기업은행)은 버디 6개, 보기 1개를 묶어 5타를 줄이며 12언더파 204타로 전날 공동 12위에서 3위그룹으로 뛰어 올랐다. 2라운드에서 선전을 펼쳤던 루키 이지영(21·하이마트)은 버디 3개, 더블보기 2개, 보기 3개를 범해 2위에서 공동 16위(7언더파 209타)로 밀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이승엽 타격 호조 비결은?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타격폼에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가장 도드라진 점은 방망이를 쥔 두 손이 가슴팍까지 내려온 것이다. 양손은 배트를 가만히 움켜쥔 게 아니라 리듬감을 타며 약간 춤을 춘다. 그러고 보니 지난달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도 이런 타법이었다.

배트를 가볍게 일자로 눕혔다가 투수의 와인드업이 시작되면 어느덧 방망이는 고정 자세를 잡고 투수의 손 끝을 무섭게 노려본다.

방망이 눕혔더니 타이밍 잡기 좋아

배트 쥔 두 손 위치 귀밑에서 가슴으로 낮춘 것이 큰 효과

'스윙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배트를 쥔 양손을 귀밑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던 영원한 스승 백인천 전 삼성 감독으로부터 타격을 배운 이후 배트 위치는 가슴까지 내려왔고 곧추 세웠던 방망이를 약간 눕힌다.

왜 일까? 이승엽은 "힘을 빼고 부드럽게 타격하기 위해 한 것인데 아마도 미야자키 스프링캠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한 것 같다.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준 것도 아니다. 타이밍 잡는 데 아주 좋다"고 말한다.

부드럽고 빠른 스윙으로 센트럴리그를 정복하기 위해 이승엽은 방망이를 890g, 900g, 910g 세 종류만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1Kg짜리로 스윙 연습을 했고 실전에서 930~950g짜리를 쓰기도 했다. 이승엽은 "지금 컨디션도 좋지 않은데 무거우면 더 못친다"며 방망이 무게를 확 줄였다.

대신 한창 더울 때인 6~7월을 대비, 지금부터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에 들어갔다. 최근 타격 부진으로 특타까지 합해져 그의 하루 스케줄은 그야말로 빡빡하다.

평소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에 도쿄돔에 출근, 웨이트트레이닝으로 몸을 단련하고 30분간 특타를 한다.

이어 20분간 비디오 타격 분석, 25분간 타격 연습을 하고 잠깐 쉰 뒤 수비훈련을 한다. 또 30분간 야수조와 함께 그날 상대 투수의 비디오 분석을 한다.

보통 3연전 첫 날 상대 투수를 분석하는 한국프로야구와 달리 요미우리는 매일 30분씩 비디오를 파고들어 그야말로 상대의 단점을 이잡듯 뒤진다.

리듬을 타는 부드러운 타격으로 2년 연속 챔피언 반지에 도전하는 이승엽은 하루를 촘촘히 쪼개 오직 야구만 생각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